

 인천광역시		보도자료		GLOBAL TOP 10 CITY INCHEON	
		배포일자	2024년 6월 26일(수) 총 2매		세계 10대 도시 인천
담당 부서	보훈정책과	담당자	• 보훈정책팀장 한경남 ☎440-2971 담당자 김미선 ☎440-297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6 · 25참전용사들, 인천SSG 홈경기 시구 · 시타자로 나서

- 호국보훈의 달 맞아 송고한 희생 기리고, 참전 영웅 예우 -

인천광역시는 25일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KT와의 홈경기에서 인천 6.25참전유공자의 시구 · 시타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.

6 · 25전쟁 발발 74주기를 기념해 열린 행사에는, 전쟁에 참전했던 강용희 용(95세, 대한민국 6 · 25참전유공자회인천지부장)과 이명섭 용(91세, 계양구지회장)이 각각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.

강용희 용은 6 · 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8240부대에 입대해 서부전선 일원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했고, 이명섭 용은 논산 제2훈련소에 입대해 참전용사로 활약한 후 1978년 33사단 육군상사로 전역했다.

이번 참전유공자의 시구 · 시타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많은 시민과 함께 송고했던 희생을 기리고 일상에서 영웅을 예우하기 위해, 인천시와 SSG 랜더스가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으며 특히 행사 전 유공자들의 소감을 담은 짙막한 인터뷰 영상이 방영돼 보는 이들

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.

시구를 했던 강용희 옹은 “많은 관중들 앞에서 뜻깊은 시구를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” 며 “참전유공자 등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인천시와 SSG 랜더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로야구 경기 시 호국영웅을 초청해 뜻깊은 행사를 함께하기로 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